

# 〈소문록〉에 나타난 애정 갈등과 가모권 다툼의 양상

전 성 운\*

##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4. 가모권 다툼의 양상과 그 의미     |
| 2. 창작 경위를 통해 본 서술 시각 | 5. 소설사적 의의 - 맺는 말을 대신하여 |
| 3. 애정 갈등의 실상과 그 의미   |                         |

## 1. 문제제기

장편 국문소설은 가부장적 가문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란 사회적 여건과 함께 17세기말 이후, 그 종류와 양을 확대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장편 국문소설을 전대 소설과 비교할 때 질적 변환을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거(準據)로 삼을 만한 초기 장편 국문소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 성과들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초기 장편 국문소설의 하나인 <소문록>에 대한 고구(考究)는 의의를 지닌다.

<소문록>은 18세기 전반에 이미 존재했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중반

\*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에는 이미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와전>에 <소문록>이란 제명, 주인공인 소현과 윤씨의 이름, 윤씨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sup>

14권 14책의 거질(巨帙)인 <소문록>과<sup>2)</sup>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최소하다. 김기동<sup>3)</sup> 생충형 가정소설로 소개한 이래, <사씨남정기>와의 관련만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후에 <소문록> 말미의 창작 경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장편 국문소설의 창작 방식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기<sup>4)</sup>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언급들은 애초 <소문록>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장편 국문소설의 창작 경위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만 최근 이순우가,<sup>5)</sup> 여주인공 윤씨를 중심으로 그 의식 변화 과정과 성격 및 특징 그리고 여기에 내재한 작가 의식 등을 살폈다. 그의 논문은 윤씨의 인물 형상과 행동을 고찰한 것으로 <소문록> 연구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윤씨의 행위에 내재한 사회적 조건과 현실적 맥락을 간과하였으며, 작품의 해석을 지

- 1)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여와전>의 창작 시기가 좀더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연숙은 <여와전>의 서명(署名)이 <육원재합기연>에 보이므로, <육원재합기연>이 필사된 18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창작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여와전>이 창작되어 유통된 후에 <육원재합기연>에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여와전>의 창작 시기를 18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여와전>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문록>이 <여와전>이 창작되기 이전에 창작 유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의 장편 국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연숙, 「<여와전> 연구」, 『고소설연구』 9(한국고소설학회, 2000) 참조.
- 2) <소문록>은 14권 14책의 서울대본이 유일하다. 본고는 이를 영인한 필사본 고전소설전집을 텍스트로 하겠으며, 이하에서는 페이지만 표시하겠다. 다만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3에 영인된 부분은 <소문록>의 권수를 밝히고 인용 페이지를 밝힌다. (<소문록>, 김기동,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2, 13(아세아문화사, 1980).
- 3) 김기동, 「<소문록> 해제」,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2(아세아문화사, 1980).
- 4)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가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송성욱, 「가문의식을 통해 본 한국고전소설의 구조와 창작의식-가문소설과 군담소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99집(서울대, 1990).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국문학연구』 110집(서울대, 1993).  
김경미, 「말미기록을 통해 본 장편 대하소설의 특징」,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III(경인문화사, 1999).
- 5) 이순우, 「<소문록> 연구」, 『이화어문논집』 17(이화어문학회, 1999).  
이순우, 「<소문록>에 나타난 인물 연구-여주인공 윤씨를 중심으로」, 『순천향어문논집』 6(순천향어문학회, 2000).

나치게 윤씨의 행위와 애정의 문제로만 국한시켰다. 더욱이 창작 시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윤씨와 같은 인물 형상이 지닌 소설사적 의미를 논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문록>의 여주인공 윤씨와 조씨의 애정 갈등과 가모권(家母權) 장악을 위한 다툼의 양상 및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념적 규범 의식으로 분식(粉飾)되지 않은 윤씨의 인물 형상과 그녀가 재취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장편 국문소설 내부에서 강화되어 가는 가부장적 가문 이데올로기의 한 양상을 볼 수 있다.

## 2. 창작 경위를 통해 본 서술 시각

장편 국문소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소설 주인공은 절대선의 주체이며, 당대 규범과 의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인 선인형 인물은 흔히 이념에 집착하는 방어적 인물로 형상화되며, 반대로 악인형 인물은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개성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때 선인형 인물이 겪는 고난은 적극적인 투쟁으로 극복되기보다는 천상계나 어떤 절대적 힘에 의해 극복된다. 이는 주인공이 애써 실천하는 당대의 규범과 의식이 천상의 질서에 의해 선형적으로 규정된 것임을 드러낸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뒤흔드는 악인의 행위를 하늘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정치(德治)함으로써 당대의 규범과 의식의 절대성이 보장된다. 이것은 선인형 인물들이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도 상통한다. 즉 선인형 인물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라는 사회 구조를 견고히 하는 데 능동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그 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획득·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소문록>의 주인공은 어떠한가. <소문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절대선의 주체이며, 이런 인물들이 벌이는 투쟁은 선형적 규정에 의해 그 절대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대의 규범과 윤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천하지는 않는 감정적 인물이거나, 당대의 규범과 윤리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인물인가. 요컨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여건에서 자신이 살아갈 방도를 찾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를 실천하며 규범과 윤리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정적 지위와 욕망을 달성하는 현실적인 인물인가.

이런 고찰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작품이 견지하고 있는 서술 시각이 어떠한가 살펴야 한다. 이는 서술 시각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행위도 그 의도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인물의 형상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서술자의 시각에 따라 등장 인물의 행위가 턱없이 미화되기도 하고, 과장적일 만큼 사악한 것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때문에 인물 형상에 대한 적확(的確)한 이해는 누구의 입장에서 작품이 서술되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한다.

서술 시각과 관련하여 <소문록>의 창작 경위와 관련된 말미 기록을 보도록 한다. 말미 기록의 준수(遵信) 여부에 대한 치밀한 논증은 나중에 미룬다고 해도, 이에서 드러난 서술자의 서술 태도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소문록>에서 갈등을 벌이는 주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윤씨와 조씨의 행위에 대해 어떤 서술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두 인물의 행위와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말미기록을 보자.

후의 흥연이 묘가를 인하여 평소낭문늑을 가져오미 원가 모든 소년이 한 가지로 보더니 들들 분연하여 갈오더 소문 가운데 허다 골결이 유로호 분 아니라 가장 회한하는 바는 윤부인이 가시를 축하여 채부인을 천지호미 투기로 인하여 승상이 취케 호단 말은 뉴녀의 부인을 억락하여 무한호 말이니 엇지 거짓 거시 되어 부인의 반성 덕형이 가리여 빅옥의 청증이 되었노 원가 소년이 웃고 왈 소가 스적을 반드시 알른 당시의 원문의 지는 자 업고 도시의 친인과 윤씨의 친인이 이의 다 모다 이 비책호며 제 과장치 못호를 드르미 풍정호 줄증은 우리 밖의 업스리니 이 일노씨 추이컨디 못르 천이 헛되미 만토다 윤부인의 전후 형적이 기간의 허다 묘호 골결과 공교호 괴관이 진실노 풍뉴의 제목이여늘 뉘던 바의 너도호미 전편이 거룻 거시 되었도다 취체 감분호를 인하여 윤시 김가의 잇던 당초 스적부터 호 싯톨 시작호미 흥연이 또호 도아 소문의 일성 가적을 실 프다시 조아너미 추호도 가감변스호 비 업스니 그시의 당시삼대록을 보는 지 다 평일 윤부인 덕형과 다르믄 의아호더니 밋 원가로부터 전설호미 듯느니 감탄치 아니리 업서 병명이 드른 지 분격호야 후의 다시 소문의 진적을 기록호시 허비호를 주호미 말이 기니 진실노 공취 슈고로오나 엇지 윤효을 위호야 추호스정이 이시리오)

홍연(조씨의 시비: 필자주)이 조씨 집안에서 <정소양문록>을 가져 왔는데, 이 책을 보고 원씨 집안 사람들이 분노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원씨 집안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윤씨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왜곡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씨의 행위를 서술한 “가지를 축하야 췌부인을 천거하미 부기로 인하야 승상이 취케 하단 말”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윤씨가 조씨의 세력에 밀려 소씨 집안에서 물러나 안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씨를 매개로 최씨를 소현에게 천거하여 셋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했다는 비난이다. 이로 인하여 취제(취애, 윤씨의 시비: 필자주)는 분노를 터트리면서 윤씨가 소씨가로 시집오기 전에 김씨 집안(윤씨의 외가: 필자주)에 있던 때의 일부터 말하기 시작하였고, 곁에서 홍연이 또한 취제를 도와 소씨 가문의 일생가적(家跡)을 “실 포다시 즈아너”게 된다. 이런 소씨가의 사적에 대한 진술은 “추호도 가감변스흔 비” 없는 진실된 것으로 <소문록>도 이들의 진술에 바탕하고 있다는 기록이다. 즉 취제와 홍연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문의 “진적”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소문록>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말미 기록에 따르면, <소문록>의 창작에는 윤씨의 시비였던 취제와 조씨의 시비였던 홍연의 시각이 동시에 개입된다. 즉 <정소양문록>(정시삼대록)의 7) 소문 관련 부분은 조씨의 일방적 시각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후에 새롭게 저술된 <소문록>은 조씨가 일방적 시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윤씨(취제)와 조씨(홍연)의 입장이 동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작가는 “엇지 윤도를 위하야 추호 소경”이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작가 자신은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씨 편에 치우쳤던 <정소양문록>(정시삼대록)의 소문 관련 부분을 확대해서 <소문록>을 썼다는 창작변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록을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는가에 있다. 장편 국문

6) <소문록> 권지십사. 327-329쪽.

7) <정시삼대록>과 <정소양문록>은 같은 책으로, 니엄이 지은 <정문록>과 조경이 지은 <소문록>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정문록>은 정씨(소연 치)의 조부 정원으로부터 정씨에게 이르는 3대의 일을 기록한 책이고, <소문록>은 소현 당대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소현이 정가의 외손(정씨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문록>과 <소문록>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러 대에 걸친 정가의 사적 끝에 외손 소현의 일을 덧붙인 것이 <소문록>인 만큼 애초의 <소문록>은 <정문록>에 비해 매우 짧은 분량이었을 것이다.

소설에는 이와 유사한 말미 기록이 여럿 있다. 이들 말미 기록에 제시된 창작 경위는 대체로 허구인 것이 많고, 다만 연작과 관련된 정보의 기술만을 믿을 수 있다고<sup>8)</sup> 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핀 <소문록>의 경우 창작 경위와 관련된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원씨의 사람들(윤씨 편에 섰던 인물들: 필자주)이 가장 분노를 터트렸던, 소현과 최씨의 결연에 대한 말미 기록과 실제 <소문록>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윤씨 탄핵야 왈 장씨는 회피 날과 헛가지러니 일즉 세상을 바리고 조취 인간의 스러져 헛갓 도시의 득즉함물 도아도다 나는 김흔 궁의 좀겨 음신이 돈결하고 당시 또 죽으니 도시와 뉴너의 심복 근심이 다 업셔졌는지라 홀노 다라이 너기를 보지 아녀서 알니로다 헛더라<sup>9)</sup>

소현이 최씨를 셋째 부인으로 얻기 직전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소현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씨는 새로 들어온 조씨가 득세하자 친정으로 돌아가 머무다가 죽는다. 이에 윤씨는 탄식하며 조씨가 자득(自得)하게 되었음을 한탄한다. 장씨는 소현의 사랑을 조씨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조씨의 세력에 밀렸다는 점에서 윤씨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때문에 윤씨와 같은 편에 있던 장씨의 죽음은 조씨의 자득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씨의 “심복근심”을 저절로 해결해 주는 사건이 된다. 윤씨가 장씨의 죽음을 한탄하는 것은 실상 장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씨의 죽음으로 더욱 곤궁한 처지가 된 자기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고 탄식한 것이다. 장씨의 죽음으로 조씨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지고 자신의 처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소현이 최씨를 맞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자못 흥미롭다.

소성이 일일은 친소성을 좇곤 보라 가시 잇는 격원의 이르렀더니 등표 형미 스이라 ... 가시 반가은 가운데 머물물 일이 업셔 이의 널오디 폐스의 남조 업셔 형이 품 쉬울 일이 업스니 지당의 유관호야 고인의 명산 스랑호여 섬담으로 가든 풍치를 효족지 아닛는노 심이 혼연이 웃고 완 현미 일제 오미 아니런들 손홍공의 낡흔 흥을 저브릴 번 호과라 말을 마춤미 후원의 이르러 경물을 완상홀시 ... 주합곡논을 의지호여 일디 미인이 응장을 섬히

8) 김경미, 앞의 논문.

9) <소문록>, 192쪽.

하고 소리를 뭉게 하여 당시 일편을 청아이 읊으니 옥성이 바람의 찌러지는 지라 성이 경아하야 눈을 쏘아 즉시 보 언연한 즈리와 풍성한 괴질이 꼭히 양왕의 꿈을 늘더니 스스로 건원하여 보라보다 글의 촉촉하여 스름의 여러 보물 아지 못하고 음영하다 옥슈로 서듬을 드러 칩을 누르고 침실노 드러가니 소성이 실망하여 손의 쥐엇던 보비를 일흔 듯 정모든 흥이 사라져 빗비 동당의 이르러10)

소현이 가씨 집에 찾아오자 이를 맞는 가씨의 행동에 주목해보자. 가씨는 집 안에 남자가 없어 소현이 머물도록 할 수 없다면서 집 근처의 풍광을 구경하라고 한다. “지당의 유관하야 고인의 명산 사랑하여 섬듬으로 가든 풍치를 효측” 하라고 가씨가 소현을 부추긴다. 가씨의 이런 부추김에 응한 소현은 후원으로 가 경물을 완성한다. 이때 후원에서는 소현의 셋째 부인이 될 최씨가 “쥬함곡 눈을 의지하여 … 웅장을 성히 하고 소리를 뭉게 하여 당시 일편을 청아이 읊” 고 있었다. 집 근처의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소현의 눈에 후원의 난간을 의지하여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당시(唐詩)를 읊고 있는 최씨의 모습이 눈에 띄는 너무 당연하다. 게다가 최씨는 웅장성식(擬裝盛飾)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시를 읊고 있었다. 누군가 후원으로 발길을 옮기지만 하면 당장 눈에 뵈 수 있는 위치에서, 곱게 단장을 한 최씨가 청아한 목소리로 당시를 읊고 있었던 것은 소현의 눈길을 끄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가씨가 소현에게 집 근처를 구경하라고 말한 것과 최씨의 이런 행동은 소현에게 최씨를 시집보내고자 했던 의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씨의 사람들이 윤씨가 가씨를 매개로 하여 최씨를 소현에게 시집보냈다고 인식한다. 그것은 안궁에 머물던 윤씨와 가씨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윤씨와 가씨, 최씨의 관계를 고려하고 보면, 조씨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이적의 안궁의 노승상 종족 가지 이시니 그 낭인 쾌성이 소년 조스하고 소미 취랑이 이셔 가지로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낼시 쾌시 힘혀 용피 아 리딸고 지질이 생려나 몸이 비록 녀지나 도로혀 남즈의 괴상이 이셔 스스로 생각하더 명되 괴험하야 어려서 가친이 구물하고 사형이 요절하야 길스를 만느기 어려오니 만일 비필을 그릇 만느쪽 이는 평성을 마춘미라 하여 나히

10) <소문록>, 193-196쪽.

임의 약관의 이르러시디 도요를 읍호미 업더라 가시 운시 안궁으로 오므로  
 브터 연괴 상적하고 친척의 정의 후호지라 빈빈이 왕녀호여 기리 금단의 스  
 파를 구호디 운시 일심의 흥황이 업는지라 스람 응접호기를 슬히 녀기되 저  
 는 온근호 뜻이 가장 후호더라<sup>11)</sup>

운씨가 조씨의 횡포를 피해 물러나 있던 안궁에는 노승상의 종족인 가씨가 살고 있었다. 가씨는 그녀의 남편 최생이 일찍 죽자, 시누이 최씨와 함께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가씨는 운씨와 나이가 비슷하고 친척의 정이 있어 자주 왕래하며, 깊이 사귀고자 한다. 운씨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였지만 가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근한 정을 두며 운씨를 후대한다. 이런 정황의 서술과 함께 가씨가 최씨의 혼사를 걱정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가씨가 운씨를 후대한 것은 최씨의 혼사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상 안궁으로 쫓겨난 운씨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시비 취애와 근근히 지내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가씨는 이런 운씨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빈빈히”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가씨가 운씨에게 의도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가씨가 운씨에게 온근한 뜻을 후하게 두었음은 바로 최씨 때문이다. 최씨는 “용피 아리답고 지질이 쟁혀나 몸이 비록 너지나 도로혀 남조의 괴상”이 있는, 그 짝을 만나기 쉽지 않은 인물이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운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장씨가 죽어, 최씨의 원군을 상실한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와 같은 기상을 지닌 최씨는 운씨의 적수인 조씨와 맞설 수 있는 당찬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씨의 집안은 몰락하여 운씨와 같은 고아의 처지이기 때문에 운씨는 최씨와 갈등할 염려도 적었을 것이다. 최씨의 친절은 조씨의 변화한 친절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운씨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가씨는 소현과 최씨가 맺어지기를 바랐음에 분명하다. 가씨 입장에서는 나이 20이 넘은 시누이 최씨를 출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씨와 운씨가 친하게 지냈다면, 조씨나 조씨 집안 사람들이 운씨가 가씨를 부추겨 최씨를 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식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소현에게 시집은 최씨는 조씨와 사사건건 맞서고,<sup>12)</sup> 최씨가 들어온 후에 조씨에 대한 소현의 애정은 운

11) <소문록>, 193-194쪽.

씨에게로 옮겨감을 볼 때 오해는 상당히 타당하다.

이런 이유로 조씨의 사람들은 윤씨가 가씨를 매개로 최씨를 소현에게 천거하여 소현과 조씨 사이를 이간(離間)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애초 조씨나 그 주변의 인물들은 윤씨가 가씨와 친한 것을 빌미로 최씨를 천거하였다고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이다. 이런 정황에 근거하여 홍연이 조가에서 가져온 <정소양문록>에는 윤씨와 가씨가 짜고 최씨를 천거했다고 기술됐을 것이다. 이에 취제 등이 잘못된 내용을 따져 세상에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작가가<sup>13)</sup> 이를 받아들여 새롭게 <소문록>을 지은 것이다.

애초 조씨에게 호의적인 서술시각으로 서술되었던 <정소양문록>에서 윤씨와 조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향의 <소문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상 현전하는 <소문록>은 윤씨를 중심으로 사건이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편파적이라 할 만큼 윤씨에게 호의적이다. 윤씨의 부덕이 특별하게 칭송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칭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씨의 모든 행위는 사리에 합당한 것처럼 묘사된다.<sup>14)</sup> 이것은 소문 내부의 가모권 장악을 둘러싼 윤씨와 조씨의 다툼에서 윤씨가 승리하였고, <소문록>은 승자인 윤씨의 입장에서 기술되었음을 의미한다.

- 12) (도씨: 필자주) 왈 모다 책시를 녀즈 가운데 당뵈라 호더니 첩은 보건디 부인똥의 도 가장 용상토다 ... 책시는 친히 보고 구호야 좃다호시 통달호 사람도 소견이 저르도다 웃느이다 책시 이의 더하여 왈 도부인 일언의 첩의 평성 슈괴호미 나타나느도다 비록 문허(호) 호미하여 가업과 조외 당의 잇지 아녜는지라 스람이 농호여 상서를 친히 구호단 말이 일시의 전파호야 부인 귀의 이르니 문미 쇠약호미라 ... 비록 귀견경중이 다르나 봉문과 후문의 이괴라(가는호) 겨집이 속으로 문을 호니 집과 비단의 향기 잇다 호니라) 향기 갖지 아닌들 규똥의 힘실이야 네법의 일뵈이라 규똥 박골 모로미야 부인이나 다뵈 첩이나 어나 다르리오 ... 도시 답왈 책시의 말이 불가하다 호 밥그르시 두 술을 쏘지 못하고 호 말게 두 안장을 짓지 못호느니 이인이 일인을 섬기며 엇지 아쳐로오미 업스리오 ... 다만 염컨디 소상서 그대 만으로는 늑지 아니러니 녀모 미리 즈부치 말지어다 (<소문록>, 212-213쪽).
- 13) 작가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김경미는 “노공뵈”가 작가라고 보았는데, 이는 “진실노 공뵈”를 잘못 끊어 읽은 것이다. (김경미, 앞의 논문.)
- 14) 윤씨에 호의적인 서술 태도로 윤씨를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부덕을 겸비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집짓 가권 투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호의적인 서술 태도를 보인 것이라 할만하다. 윤씨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결국 <소문록>의 말미 기록을 통해 애초 <정소양문록>에 들어있던 조씨 중심의 간략한 소문 과련 이야기가 윤씨의 입장을 배려한 자세하고 긴 <소문록>으로 개작되었음과 윤씨와 조씨의 갈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하면서도 일정부분은 분명 윤씨의 입장에서 윤씨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연을 제외한 취애와 원가의 인물들이 모두 윤씨의 편에 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소문록> 연구자들이 일방적으로 윤씨의 시각에 함몰되어 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 3. 애정 갈등의 실상과 그 의미

대부분의 가정소설에서처럼 <소문록>의 주된 갈등은 소현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윤씨와 조씨의 애정 획득을 위한 다툼이다. 이들이 벌이는 애정 갈등은 <소문록>의 모든 갈등에 있어 출발점임과 동시에 제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소현의 첫째 부인이었던 호씨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편 소현의 애정에 마가 끼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실현되어, 계실 윤씨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없는 소현 때문에 무던히 속을 끓인다.

윤시 가수를 추장하여 네로써 십분 괴경하던 스스로는 일호 친히미 업스니 윤시 성되 팀정훈지라 만분 스식함미 업스디 등심의 처연히 외로오물 슬허 오직 원을 좇으며 정을 석여 덩부인고 고련호물 의지하여 유열한 스식과 온운호 덕남으로 날을 규곤의 법제를 힘쓰미 고구 형대 더욱 사랑호야 소심을 만난죽 문득 힐문호여 널오디<sup>15)</sup>

윤씨는 소가에 들어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오직 남편만이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는다. 윤씨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 외롭고 슬프며 원통하기 그지없지만, 스스로 마음을 삭이며 집안을 꾸려간다. 내성적인 성격의 윤씨로서는 당연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행동 방식이다. 윤씨는 남편이 매물차게 굴수록 시부모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에게 정성을 다한다. 드

15) <소문록>, 20쪽.

러내놓고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지도 못했을 터이고, 오직 “등부인과 교련”함을 의지하는 것이 그녀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남편이 아닌 “고구 형대 더욱 사랑”했다.

윤씨의 이런 처세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친부모가 모두 일찍 죽고 외삼촌 김시랑 집에서 자란 윤씨로서는 웃어른들의 눈치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고 “팀정”한 것도 상당부분 고아가 된 처지에서 더부살이하는 집안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야 했을 터이고 보면,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윤씨의 성벽이 천성적으로 침정(沈靜)한 것도 사실일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향적 성격에 부모 없이 외삼촌 집에서 자란 성장 배경이 상승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격과 성장 배경을 지닌 윤씨의 소문 내부에서의 처지는 점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심이: 필자주) ... 널오더 균형이 이르지 아니셔도 소대 엇지 모르리오마는 오직 금슬의 환우와 향녀의 경의 이르러는 주연 경의 톱톱하니 너 스스로 가드드마 고치져 못하고 도로혀 의혹하니 겁허이다. ... (정부인: 필자주) 현이 윤당으로 은의 불합흐를 미일 근심하여 날노 권유하니 윤씨 소심의 박경도곤 도로혀 이 경계을 난쳐하니 날노 소심 향홀 의식 셋기고 머러 다니 심각이 엇지 친흔더 미흔리오 다만 부인의 사랑을 밋고 통부 김시로 왕왕의 경을 부쳐 스스로 관심하나 부모을 여히고 삼강오상의 혼 곳 친흔미 업스미 반심 신세에 의탁홀고져 업스니 엇지 이그흔며 눈을 나리미 업스리오 미양 나죄 둘과 고요홀 경점의 격막진 시름이 마음의 등등하니 빙흔이 바아지며 옥끝이 초채하야 존고을 되시며 형대로 더브러는 춘풍을 잇글며 안석이 유희흔드겨 은운조약하디 다만 소심을 만나는 넘담홀 괴외 업속하야 능범커 어렵더니<sup>16)</sup>

소현이 윤씨를 드러내놓고 박대하지는 않는다. 소현은 윤씨를 심분 예로서 공경한다. 소현은 형제들이 윤씨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채근하자, 소현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웬지 “경의 톱톱”하다고 한다. 왜 그렇게 서먹서먹한지 소현 스스로도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부부 생활은 전적으로 소현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애초 싹싹하지 못하고 내성

16) <소문록>, 21-22쪽.

적인 윤씨를 어렵게만 공경한 소현도 문제였지만, 윤씨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윤씨는 소현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는 “츄풍을 잇글며 안식이 유희흔드겨 온윤즈악”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소현을 만나면 “녕담호 괴되 엄속흐야 능범커 어렵”게 한다. 활달하며 경박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소현으로서<sup>17)</sup> 쌀쌀맞기만 한 윤씨가 사랑스럽게 보였을 리 만무하다. 소현은 윤씨에게 애정이 묻어나는 농담 한마디 제대로 건넬 수 없었던 것이다.

소현의 냉담함이 계속될수록 윤씨는 더욱 소현에 대한 원한이 쌓여간다. 부덕(婦德)을 온전히 갖춘 여타 장편 국문소설의 여주인공과 달리 윤씨는 소현에 대한 “의시 셋고고 머려”져 조금도 친근한 생각이 생길 리 없게 된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결혼에서 윤씨는 더욱 정부인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 시어머니 정부인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하거나, 신세 한탄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 오직 사촌 언니이자 손위 동서인 김씨에게 가끔 마음을 의지하여 스스로 마음을 달랠 따름이다.

윤씨의 이런 형편은 친경 부모가 없고 일가불이가 없다는 것파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작가의 서술처럼 윤씨는 “삼강오상의 훈 곳 친흐미 업스디 반성 신세에 의탁홀고지 업”는 비참한 신세였던 것이다. 자신의 처참한 신세를 자각하면 할수록 윤씨는 애가 끊어지는 듯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편과의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에 “빙혼이 바아지며 옥골이 초췌”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윤씨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부모와 시집 형제들이 그나마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라.

이처럼 <소문록>의 윤씨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인간형이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부덕의 현현(顯現)으로서 윤씨라면 남편에 대해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추악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씨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17) 소현은 풍류 남아이다. 윤·장 두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서 새로 온 미인 가월이나 윤씨의 시비 옥영으로 “츄야환낙”(<소문록>, 26쪽.)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말미 기록에서 니엄이 정찰정에게 “소후의 풍류 화려을 도와” 소문록을 지으라고 하자, 소현의 형 소광은 소현이 “허랑이 심홀른” 혈기 호방할 때의 일이니 “허랑만 기록한 즉 원억할”것이라고 말한다. 소현은 친형에게조차 허랑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풍류를 즐기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소문록>, 권지십사, 313-314쪽 참조.)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런 감정에 솔직한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부덕으로 화려하게 분식하여 애정에 대한 갈망 자체를 부정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호도 품지 않는 인간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셈이다.<sup>18)</sup>

그런데 나빠진 소현과 윤씨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황제에 의한 조씨의 사혼(賜婚)이 발생한다. 소현이 나이 이십이 되도록 후사가 없는 것을 염려한 황제가 승상 조원의 딸이자, 황후의 내질인 조씨를 셋째 부인으로 맞게 하는 것이다. 황제의 사혼은 내심 셋째 부인을 맞고 싶었던 소현에게<sup>19)</sup> 진정 바라던 일이었다. 그리고 또한 사혼에 의해 맞아들인 조씨는 또한 윤씨처럼 내성적이고 냉정한 성격이 아니었다.

소성이 웃고 왈 진실노 윤당 양인은 세간의 괴특호 스텐이라 향념호 용화와 현연호 스텐이 기리 등심의 공경호기 되어서더 오직 일촌 은경이 돈연이 뵈뵈호여 쏘호 이 가온더 일기 당왜 업스물 기리 원호다가 도로혀 그대의 죽약호 티도와 영오호 괴질을 취호니 이제 쓰더 즐겁고 경의 화호며 무손의 썸이 무로녹야 빅년 일몽을 늦비 너기거늘 부인은 무스일노 이려듯 뵈물호노<sup>20)</sup>

소현은 조씨에게 윤씨와 장씨는 마음 속 깊이 공경하기는 했지만 조금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조씨에게 사랑의 마음을 서슴없이 고백한다. 윤씨처럼 냉담하지 않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태도와 민첩하고 재치 있는 기질의 조씨를 만나니 마음이 즐겁고 정(情)이 화하여 “무손의 썸이 무로녹야 빅년 일몽을 늦비 너”길 정도라고 한다. 또한 조씨와 자신의 결연을 봉이 짝을 이루어 화답하는 것 같고 비익조가 머리를 나란히 한 것과 같다고<sup>21)</sup> 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소현이 윤씨를 대하던 태도와 비교하면 실로 엄청나

18) <소문록>의 등장 인물들 통해서 看取할 수 있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인간형에 대해서는 필자가 간략하게 지적한 바 있다. (전성운, 「장편 국문소설의 변모와 영웅소설의 형성」,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참조.

19) 소현이 이 의식 등심의 이선지 오러되 부되 허치 아니물 두려호더니 이날 어교을 받즈와 혼연호물 이기지 못호니 오직 뵈뵈 겨상호여 텃은을 비스호고 집의 도라와 성지를 전호니 (<소문록>, 28-29쪽.)

20) <소문록>, 65쪽.

21) 소성이 웃고 왈 그대와 너 만노므로부터 심경의 미미호미 단소의 우눈 봉이 소리를 화호며 벽담의 비익죄 처경을 교호 가튼지라 (<소문록>, 63쪽.)

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내성적이고 자신에게 쌀쌀맞게 굴던 윤씨에게는 갖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을 조씨에게 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윤씨와 조씨, 소현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정 갈등이 전세의 업보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즉 윤씨와 소현 사이의 성격 차이나 성장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로 인하여 이들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씨가 전생의 업보를 해소할 만큼의 신공을 드림으로써 전세의 업보를 풀 기회를 얻게 된다. 윤씨가 조씨의 박해를 피해 물러난 안궁에서 관음의 가사에 수를 놓는 등 불가에 여러 가지 신공을 드린다. 이에 관음보살이 윤씨의 불공에 감응하여 윤씨의 전생 업보와 미래에 대해 말해준다.

(해안법사: 필자주) 소현은 당신이 당시의 조부 정원이오 너는 전인이 도광의 녀 도계랑이니 당초의 도계랑과 정원은 선품진인으로 숙세남연이 희로홀연분이러나 네 능히 생각하느나 정원의 창첩 초선은 본디 양가 녀즈로 뉴락 할야 기뉴의 입격할야시나 쏘홀 정원으로 일세 숙연니 이셔 즈녀을 탄싱할야 쇼셔 위을 정할야거늘 네 도계랑이 되어신 제 투귀을 이기지 못하여 독히 치고 마참니 독약을 주어 ... 초선이 쏘홀 비명의 죽어느지라 ... 초선은 도가 너지 되였고 계랑은 윤가 녀지 되어 널노 할야곰 고초을 격겨 슬희흔 환을 감고 도너 초선 집스한 원을 다 감호니 보야호로 계랑이 정원으로 미진홀 숙세 가연과 당초의 정원이 궁향고긔으로 흠미호고 초체할야거늘 도광이 현금녀으로써 동상의 친을 일워 드춤니 발적할야 나미 전혀 도상셔의 덕이라 조강의 간고를 혼 가지로 겹고 부귀을 홀노 누리지 못하여시므로써 금세의 오십년 동낙과 복득을 겸지호느니라 할며 환심흔 후 스덕이 순양하며 불가의 신공이 만흔지라 이제 비로소 업원이 진호고 풍운의 썬 일우리라<sup>22)</sup>

관음의 제자인 해안법사가 윤씨의 꿈에 나타나 윤씨가 겪는 고초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고지(告知)하고 있다. 해안법사는 전생의 소현은 정씨(소현의 어머니 : 필자주)의 조부 정원이었으며, 윤씨는 정원의 조강지처 조계랑이라 한다. 그리고 조씨를 비롯한 소현의 처들이 어떤 전과(前過)가 있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지 말한다. 해안법사의 말에 의하면 정원은 양가 여자로 기적(妓籍)에 오른 초선(현세의 조씨 필자주)과 숙세의 인연이 있어 그를 첩으로 들이고 자식을 낳았는데, 조계랑이 초선을 심하게 때리고 독약으로 살해했으며, 이로 인하여 조씨는 윤씨에게 환을 품고

22) <소문록>, 249-252쪽.

금세에 윤씨를 십년간 구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타의 장편 국문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윤씨의 고난은 선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 아니다. 윤씨는 전적으로 전세의 애정 갈등과 이에 서 비롯된 죄과에 기인한다. 요컨대 처첩간의 애정 갈등 문제가 전세에서 있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현세의 <소문록>에서 윤씨와 조씨가 대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문록>이 애정 갈등이 주요한 갈등축임을 의미한다. 다만 이들의 애정 갈등이 전적으로 전세에서 기인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이들의 애정 갈등은 단순히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갈구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모권의 장악이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 가모(家母)의 소임, 가모권의 장악은 곧 가문 내부에서 누가 누구의 총제(摠制)를 받는가 라는 여성적 권력 문제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윤씨 더왈 첩은 명되 괴박하여 어려서 쌍친을 여히고 부모의 교훈함미 업스니 엇지 하여금 성문과 소상서의 고안의 가당함미 잇시리오. 이력므로 스스로 붓그러오미 잇더니 이제 도시는 늙흔 가문의 귀히 심장하여 호물며 지존이 등미되스 영요흔 광칙와 너븐 교훈의 괴특함을 경해야 노도함미 임의 소상서 호귀타 호물며 구구흔 첩의 평성을 임의 도시의 장년의 더졌는지라 화하며 화치 아니미 우리게 엇지 아니니 오늘날 성하 일카라시를 엇지 충당하리잇고 당시 같오디 첩은 업친의 스랑을 니보나 조도의 가라치를 모르고 못쳐 황명으로 소상서를 조든나 엇지 상적함미 이시리오 ... 도시 규곤의 돕는 바을 만일 소상서 어귀오미 업술진디 첩등 벌린 품의 평성 의탁이 도로혀 도시게 돌려지니 믹츨니 버리지 아니호면 이거시 은혜로다 ... 부인이 엇지 답언을 그리 미미히 호시노노 우리 양인이 비록 온져 스람이나 가모 소임은 부인이 호하니니 우리 평성이 부인고 이시나 다르리오<sup>23)</sup>

누구의 총제를 받는가에 대한 것은 윤씨나 장씨는 물론이고 조씨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들의 갈등에 있어 애정, 즉 소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더 심각하고 핵심적인 것은 누가 가모권을 완전하게 장악하느냐이다. 윤씨와 장씨가 자신들의 운영은 조씨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도 가모권에 의한 총제와 관련된다. 좋은 가문이라는 배경에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한 조씨를 윤씨나 장씨가 상대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일단 조씨가 가모권을 차지하게

23) <소문록>, 121-123쪽.

되면, 윤·장이 아무리 먼저 들어온 부인이라 해도 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소현의 사랑은 가모권 장악의 중요한 변수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조씨의 대리인이라 할 뉴보모는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씨의 모든 상대 세력을 경계하고, 미리 제거하려 한다. 이런 기미를 눈치 채 장씨는 근친을 핑계로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돌아갈 친정이 없는 윤씨로서는 근신하며 매우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sup>24)</sup> 윤씨는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을 썩이면서도 버틸 수 있었지만, 가모권을 빼앗길 경우에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안궁으로 피한 것도 생존을 위한 것이다. 윤씨는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안궁으로 떠난다. 윤씨는 지척에서 조씨와 뉴보모의 감시와 핍박을 받기보다는 안궁으로 물러나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기회를 노리고자 한다.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궁인은 명을 받드지 아니코 티월 모러는 습봉을 일워시니 일명이 습연을 니어나물 버라지 아녓더니 텨되 소연호여 핑혀 화원 가운데 일총이최 이셔 벽쪽홀법이 이 훈 줄기를 먹으며 날이 맛도록 비 골프를 썰다지 못호거늘 또 암호의 훈 못 감수 이셔 일비를 마시면 날이 맛도록 주된 거슬 이져 부인이 일노빠 명을 니으시니 모든 비복도 산상의 미궐빙변으로 잔명을 부치며 뉴광이 오란 후는 지변의 호셔을 시브며 전중의 습뭍을 갈고 왕왕의 부인이 단청을 그리며 여셔을 썩 시상의 가 환티호여 간고히 날을 지너니 노야 부귀의 효험이 임의 현연히 절호지라 다시 인연호여 이 원을 알 니 업스니 성전은커니와 소후의도 원귀되리로다 괴약호였더니<sup>25)</sup>

그러나 안궁에서의 윤씨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윤씨에게 지급되는 쌀은 모래로 바뀌어 있다. 소상서가의 집안을 다스리던 윤씨가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부지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된다. 한 목숨이 “습연을 니어나물 버라지 아녓”던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윤씨는 “화원 가운데 일총이초”(一叢異草)와 “암호의 훈 못 감수”(甘水)로 근근히 연명하고, 비복들은 “미궐빙변”(微蔭)

24) 뉴보모 일조의 상셔의 드음이 썰드라 스랑이 올물가 저허호미 아쳐호물 마지 아너 상히 호는 괴를을 규규히 옌는지라 당시 이 동정을 알고 소스로 근친호물 일카라 가물 어드나 윤시는 부귀 잇지 아니커든 옛지 도라갈 집이 이시리오 오직 소스로 근신토로써 정을 썩이거늘 (<소문록>, 67쪽.)

25) <소문록>, 304-305쪽.

氷藥)을 찾아 해낸다. 세월이 지나면서 비복들은 연못가에 하서(夏黍)를 심고 밭에 속맥(菽麥)을 갈아 자급자족할 제책을 세우고, 윤씨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팔아 간고(艱苦)하게 생활을 꾸린다. 새롭게 이룩된 소상서가의 첫째 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곤약을 치르게 된다. “노야(소현 : 필자주) 부귀의 효험이 임의 현연히 절”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심전은커니와 스후의도 원귀 되리토다 괴약”했던 것도 그 고난이 심함을 말하는 단적인 징표다.

그러나 윤씨가 소현과의 애정 결여로 인하여 겪는 고난의 표면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전생의 업보와 호씨의 저주에 의한 것이었다.<sup>26)</sup> 그런 만큼 전생의 업보에 상응하는 고난을 겪고 선업을 쌓으면 된다. 실제 윤씨에 대한 소현의 무정함은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서술된다. 오히려 천정(天定)에 의한 것으로 본인들도 알 수 없는 묘한 감정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랑의 회복도 현실적 조건과는 상관없는 전생의 업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0년간 윤씨에게 박정했던 소현이 갑자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다. 해안법사의 예언처럼 현실적 조건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경(寫經), 관음화상의 보수(補修), 가사(袈裟)에 수 놓는 일과 같은 행위를 윤씨가 하자, 소현과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취임이 윤씨를 더하여 깃브름 흘레호거늘 윤씨 정식 왈 너는 비환의 당하여 요동치말나 허랑흔 남존의 소행이 미들 일이 업손지라 설스 진정인들 괴므어서 깃브리오 말을 다쳐며 침상의 나가 일몽을 어드니 다만 일기 소년 너지 면전의 이르러 스스로 일카라디 나는 처음의 소심의 비벌이러니 만는 일연이 못호여 금슬의 줄이 긋쳐져 구원의 훈이 미쳐더러니 초선의 요흔이 명스의 나아가 징송호미 첩이 임의 빌미 되어 그디올 곤케 호더니 그디 도가의 정성이 지극하며 신편이 호디호지라 전세 업원이 푸러지고 또 남획판 음디시 텃도호여 첩으로 설스도의 남지되게 하니 부인은 날을 훈치 말고 비록 환도호나 남은 혼빚을 훈갈갓키 위로호라<sup>27)</sup>

26) 호시 이 씨 질병이 일함 참면호니 비약이 영호 공이 업손지라 스스로 슬허호야 미양 소성을 더호야 널오더 첩이 마춤니 이 병의 명을 마춤니 만일 낭군의 부귀의 즐거오물 홀노 밋지 못호죽 구원의 범범이 훈이 미쳐리니 맛당이 모진 혼빚이 되어 금슬의 정을 회지오리라 심이 웃고 왈 남지 아모리타 환거홀 의 업시러이 정녕 이 비록 영험호들 싱스 길이 다른 후 엇지 능히 잘 작일호리오 숙절업슨 염여로써 병심을 변쳐지 말고 즐 조섭호라 호시 악연 부답이러니 (<소문록>, 8쪽.)

27) <소문록>, 320-321쪽.

소현이 안궁에 머물고 있는 윤씨에게 이별이 너무 힘들다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취앵이 윤씨에게 축하하자, 십년간 박대에 마음이 상할대로 상한 윤씨는 “허랑흔 남자의 소행”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윤씨의 반응은 그간의 박대로 인한 미움의 표현이자 스스로 마음에 일고 있는 기쁨을 억제하는 발언이다. 취앵과의 대화를 끝으로 잠자리에 든 윤씨는 꿈에 소현의 첫째 부인이었던 호씨를 본다. 호씨는 “구원의 혼이 미쳐” 윤씨를 곤하게 했으나 이제 남자로 환생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호씨의 현몽은 윤씨의 앞날에 증거가 되어, 소현의 윤씨에 대한 사랑은 이후 한결같아진다.

호씨의 현몽 이후로 윤씨와 조씨의 사랑 다툼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조씨의 입장에서는 애정 다툼이 새로운 판도에서 지속되는 것이지만, 윤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쟁취했다고 윤씨의 고난이 끝나고 그의 현실적 입지가 공고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윤씨의 고난이 단순한 사랑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애정은 한 가문내에서 존립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획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애정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요컨대 윤씨가 소씨 가문내에서 존립할 수 있는 지지 기반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비화된다.

#### 4. 가모권 다툼의 양상과 그 의미

윤씨와 조씨의 갈등에 있어 애정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남편의 애정만으로 한 가문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화할 수는 없었다. 여성으로서 한 가문의 대소사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즉 가모권을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존립의 근거가 튼실해진다. 그렇다면 윤씨가 가모권을 온전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첫째 부인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모(家母)의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남편의 사랑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정 가문의 변성이다. 변성한 친정은 언제고 든든한 원군이 되어 자신을 원조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변성한 친정을 둔 여자는 시집 와서도 당당할 수 있고, 시가(媿家)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게 된다.

그런데 윤씨의 친정 가문은 조씨의 변성한 친정과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 사실상 친정이 없는 상태였다. 부도가 일찍 죽고 외삼촌 슬하에서 자란 윤씨와 황후의 내질이요, 승상의 독녀인 조씨의 처지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애초 조씨가 소현에게 사촌되었을 때 윤씨가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었다면 문제가 덜 심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갓 시집온 조씨가 소현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조씨는 높은 친정 가문을 믿고 “당당호 부귀의 세을 과궁”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온 집안 비복과 시첩들이 조씨를 추존(追尊)하며, 윤씨를 경멸하는 것이 “하늘 싸히 현격함 갓”았음은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이로써 윤씨는 조씨가 시집온 후로 “구고 형태”의 보살핌을 잃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첫째 부인의 권위는 상실하게 된다.<sup>28)</sup> 이런 윤씨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소가의 가모권을 총괄하던 시어머니인 정부인뿐이다. 정부인의 그늘이라면 윤씨는 별다른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의 대리인 뉴보모는 이런 윤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존립 근거를 박탈하려고 한다.

뉴보모 이 씨을 타 조로 도시를 달녀어 집을 듯호를 권호는지라 소성이 이의 뜻슬 곁호여 덩당의 이 소유을 고호고 분장을 연호여 일원 디스을 이르렬시 고루거각은 둥턴의 나는 듯호거늘 옥견금주는 치운의 결렸는 듯호니 화동금벽이 헛밧치 빗이든 이 경히 시 단청의 휘황호미여니와 곳동산과 버들수풀이 십니을 접호야 긴 담이 되호 두로며 고본 난간이 너 비취븐 호갓 소승상과 소상셔의 부귀만으로 이럴 비 아니라 도시 황후의 외질이며 도승상 독녀으로 모롬 단장의 것과 의금의 뉴 쏘호 궁둥으로조초치 니르므로써 그 부려호며 호치호미 남의 뉴의 다른지라 도시 경천호 성품의 오만호 귀운을 이괴지 못호여 모든 스텐을 압두호니 그 세 원 집을 경동호더라<sup>29)</sup>

28) 도시는 임의 상분 귀소저로 당당호 부귀의 세을 과궁호며 가부의 총권을 썬 다득호며 합스을 묘시호니 윤시 텡허 어진 형실의 효험을 힘입어 구고 형태의 보편호를 일치 아니는 시첩이너 비복은 소인의 식견이라 도시을 추존호며 윤시를 경멸호미 하늘 싸히 현격함 갓든지라 도시 스스로 안공조부호야 교호호미 심호지라 부피 쏘호 가보야이 더를 경계호녀 이를 무양치 못호야 형세 조연 기우러지니 윤시의 종격이 썬여호며 경세 고단호른 날노 더오더라 (<소문록>, 67-68쪽.)

뉴보모는 조씨를 피어 새 집을 짓도록 한다. 뉴보모가 새 집을 짓도록 획책하는 것은 단순히 화려 웅장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소현을 부모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조씨로 하여금 가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가모권이 고스란히 정부인에게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소현이 분가(分家)하지 않는 한 정부인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는 셈이고, 윤씨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소현이 분가를 하지 않고서는 뉴보모와 조씨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가모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뉴보모는 조씨에게 웅장한 새 건물을 짓게 한다. 고루거각은 “똥똥의 나는 듯”하고 옥으로 만든 전각과 기둥은 “죄운의 걸렸는 듯”하며, 휘황찬란한 단청에 십리에 걸친 꽃동산과 버들수풀을 곁에 두고 “긴 담이 되홀 두”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 것은 소가의 능력만으로는 어렵었다. 이런 집은 “소승상과 소상서의 부귀만”으로는 불가능한, 조씨가 “황후의 외질이며 도승상 독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단장의 것과 의금의 뉴”도 궁중에서 가져온다. 새로 분가하는 집을 친정 가문의 부와 권세에 의지하여 지을 수 있었기에 조씨는 “오만한 귀운”으로 “모든 사람을 압두”하고, 그 세력이 “원 집을 경동”하였다. 뉴보모의 계략이 적중한 것이다. 반면 소현의 치우친 사랑과 조씨의 엄청난 배경 앞에 윤씨는 그 처지가 점점 더 궁박해진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씨처럼 근친을 핑계로 친정에 돌아가는 길뿐이다. 하지만 윤씨에게는 돌아갈 친정조차 없었다.

친정의 위세를 등에 업은 조씨로 인해 현실적 처지가 궁박해질 대로 궁박해진 윤씨가 자신의 친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그동안 친정 가문의 존재를 시집살이의 피로운 심정을 털어놓을 곳으로만 인식했다면, 이제는 좀더 절박한 생존의 토대로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윤씨는 아버지의 분묘에 제사를 거행하기로 한다. 절박한 자신의 처지만큼이나 절실하게 친정이란 배경을 원하게 된다.

윤씨 상서의 무경과 뉴여의 곤욕은 원치 아니더 생각이 이의 이르러는

29) <소문록>, 68-69쪽.

이 미여지고 빼 바야는 듯하여 천번 생각하고 만번 도라보아도 스면의 친하니 업셔 다만 외로운 그림지 얼굴을 조출 썬이라 궁극한 정회 오직 뉴명천디 아리 부모 조취를 싸올박기 정을 의지할 쏫지 업스니 톱톱히 원을 먹음어 쳐쳐히 브르지져 날을 보디드니 이의 비창흔 날노 하여곰 연고업시 퍼결 호기는 차마 참지 못하고 제전을 베평고져흔 작 뉴여 가등 원들과 줄을 좁아 구구하며 비편할 조각이 만홀지다 이의 그 형역의 나아가 혼번 통창이 울고 방심해야 설체호를 생각고 당부인디는 나아가 품왕 선친의 명되 기박 호야 스속을 홀 남지 업고 도도히 박명흔 껌을 끼쳐 반상신세 험는호므로써 혈심을 쓴케 되여시니 엇지 선조의 죄인이 아니리오<sup>30)</sup>

윤씨에게는 완전히 없어진 자신의 친정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 처지와 엇물리면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자신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미치자 “이 미여지고 빼 바야는 듯”하게 되는 것은 천번만번 생각해도 “스면의 친”한 사람 하나 없는 자신의 신세 때문이다. 자신의 곤궁한 정회를 펴 수 있는 곳이라고는 “뉴명천디 아리 부모 조취” 밖에 없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역을 찾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에 윤씨는 부모님 무덤에 가서 “혼번 통창이 울고 방심”하려 한다. 여기서 윤씨가 친정의 후사를 이을 남자가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자신과 같은 여자가 태어나 부모님의 핏줄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선조의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윤씨가 잊고 있던 친정 부모와 그를 이을 후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관공해진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윤씨는 분묘에 제사를 지내고자 정부인에게 청원한다. 그런데 이런 청원은 다소 엉뚱한 누명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 뉴보모의 계략에 의한 것이다. 뉴보모는 윤씨가 기차치성을 드리러 간다고 포함한다.<sup>31)</sup> 뉴보모의 계략은 아주 적절하게 먹혀 들어가 소현은 거마와 소분(掃墳)에 필요한 행장을 갖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윤씨의 분묘 제사를 막으려 한다. 그러나 윤씨는 소현의

30) <소문록>, 92-93쪽.

31) (입선: 필자주) 숙모 윤씨 이제 선산의 소분호므로서 일홈하나 실은 습문스의 나아가 부쳐기 친히 중녕진향호고 상산호를 축원호려 한다 호니 호소호 집 가 권이라도 오히려 녀지 친히 뒷결과 풀똥의게 나아가지 못호려든 호물며 팔좌의 존호므로써 이런 거조를 항호여 스스로 존중호를 욱되게 호고 숙부 체면을 상순호민 밋게 호니 일이 가장 관계한지라 숙부는 어이 글단치 아니시고노 (<소문록>, 95-96쪽.)

반대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분묘 제사를 강행한다.

(윤씨 : 필자주) 존당의 이르러 초초한 기마을 어더 처량이 독산의 이러려 청산이 은은하며 뉴쉬 양양하디 뵈 뵈속의 훈중 흥거슨 분묘의 빅양은 소소하고 송풍은 처쳐하니 윤시 비창한 경을 이기지 못하여 기리 통곡홀시 부모 조취을 생각하니 녕혼이 머지 아니디 반기미 업고 소싱의 무정과 슬하의 일기 유치 업셔 부모종시 그쳐져 다시 이을 효외 업스물 생각하니 돌돌이 셔든 막음이 심간을 사라버리거늘 쉼쉼 삼금과 두견이 슬프물 보되니 이 바아져 종일토록 호곡오열하야 그칠 줄 모로니 흐르는 두루는 분초을 적시며 익원홀 육성은 구주의 스맛는 듯 거의 혼결홀 듯하니 좌우 시비 아니 슬허하리 업고 선전초목이 다 늦기논 듯하니<sup>32)</sup>

윤씨가 남편의 반대와 뉴부모의 집요한 방해에도 친정 부모의 분묘행을 고집한 것은 부모의 분묘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친의 묘소 역시 윤씨의 현실적 처지와 궤차 다르지 않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뵈 뵈속의 훈중 흥거슨 분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지를 깨달을수록 “슬하의 일기 유치 업”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자신이 아들을 낳는 것은 소씨가에서 결코 굴하지 않는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만 버티면 자신의 위치는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은 소현의 첫째 부인 아닌가.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면 장손으로서 소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게 되고, 자신은 가모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행여 자신이 축출된다고 해도 아들을 빌미로 소가에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지 못하면 윤씨 가문을 부흥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 윤씨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뉴부모는 윤씨가 기자치성(祈子致誠)하러 간다고 모함한다.

(윤씨) 잠간 쉬기를 인하여 산님 그옥홀더 안즈 우연이 우러러 보니 산양의 연호 고더 일좌 석불을 안쳐시니 완연이 심괴 잇는지라 윤시 취임드러 무른디 잉이 더왈 소비 전일 계스을 듣이며 토인의 말을 드르니 이 피 송불호는 시취 이 불상을 창립하디 즈뭇 영험하미 이셔 형킵이 길흉을 비러 만히 소원을 일운다 하니 우리도 이의 이르러시니 호 번 축원하여 장녀을 점복하스이다 말을 맞고 불전의 나아가 네비하여 중심의 발원하디 소시와 인연은 본디 원치 아니하느니 다만 부모정녕이 한 가지로 님하여 윤시 향화를 곳게 마르소서 하더라<sup>33)</sup>

32) <소문록>, 98-99쪽.

소분을 나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산기슭에 있는 석불을 발견하여 치성을 드린다는 내용이다. 치성의 내용인 즉 “소시와 인연은 본디 원치 아니”하니 다만 “운시 향화를 굳게 파르소서”라는 것이다. 자신은 소현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테니 제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이는 실제로 소현과의 인연이 끊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입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발원이다. 아들을 낳아야 자신이 소씨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복권의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34)</sup>

그런데 뉴보모의 기자치성이란 모함에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씨의 행위가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윤씨는 소분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다 우연히 산기슭에 위치한 “일좌 석불”을 발견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취앵은 “전일 제소를 든이”던 곳이라 석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 석불이 “조듯 영험”하여 “행iki이 곁흉을 비려 만히 소원”을 이룬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윤씨의 분신이라 할 취앵이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소문록>이 취앵의 말에 기대어 창작되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상 윤씨는 뉴보모의 도합처럼 기자치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씨는 애초부터 분묘 제사와 기자치성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윤씨의 아들을 낳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기자치성 후 소현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하필 조씨가 장간 근친 간 사이에 소현은 부부화합하라는 형제들의 권유로 윤씨가 머물고 있는 서루를 찾는다.

소심이 혼연이 웃고 형테의 경을 감동호여 연일호여 서루의 이르러 일반  
은근호미 윤공화류 가트되 운시 비록 스식을 화평이 하니 믿음너 힘지온유  
호며 처신의 신동호미 스함으로 할여공 이정홈계 호는지라 성이 감히 친분  
이 못호나 등심의 김히 항부호더니 묘시 도라오니 서로 마즌 깃저홀시 알연  
호 스식과 보도라온 말노 낭장호미 무궁호니 비록 여정호미 업스나 친익호  
문 조연 뜻이 잇글니고 믿음이 취호야 빅시 호터지니 운시를 존중 길히 연

33) <소문록>, 101-102쪽.

34) 이런 윤씨가를 잇을 자식을 짐지해달라는 내용의 치성은, 훗날 윤씨가 안궁에서 소가로 돌아오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인 친정 부모의 사당 개창이나, 윤씨가 완전히 가모권을 장악하고 둘째 아들로 윤씨 가문을 잇게 하는 것에도 관련되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친정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인 셈이다.

서 돈결함미 처음갓더니<sup>35)</sup>

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쌀쌀맞게 대하던 소현에 대한 윤씨의 태도가 일변한다. 소현을 한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한 적이 없던 윤씨가 “스식을 화평이 흐”고 “헝지온유흐”게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다. 더욱이 처신을 가려리게 하여 “스람으로 흐여곰 인정흠”게 하였다는 서술은 윤씨가 소현과 관계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것을 평생 모르던 윤씨가 소현을 유혹한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소현이 먼저 서투를 찾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예사롭지 않다. 하필 조씨가 친정으로 간 틈을 타 소현의 형제들이 윤씨와 화합하라고 권했으며, 이에 윤씨는 적극적인 태도로 소현을 맞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석불 앞에서 소현과의 인연이 끊어져도 좋다고 기원했던 것이나, 소현에게 냉담하고 쌀쌀맞게만 굴던 예전의 윤씨가 보인 태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윤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만큼 절박하게 인식한 때문이다. 윤씨의 행동은 자신이 생존할 최소한의 임지 마련을 위한 절절한 노력인 셈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윤씨는 임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최소한의 임지를 확보한 윤씨는 “소성의 박경과 뉴녀의 침육”을 잊고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뉴녀의 헝헝흔 심정의 집히 띄워흐미 날노 더더더 모로는 듯”<sup>36)</sup> 삶을 꾸려간다. 그러나 윤씨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들 가흥이 병이 들어 죽게 된다. 가흥의 죽음은 윤씨에게는 단순한 자식 잃은 슬픔 이상의 충격이었다. 조씨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조씨와 뉴보모의 박해를 피해 안궁으로 물러난다. 그것은 윤씨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도 기대할 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다.

안궁에서의 고난에 찬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소현과의 애정이 회복된 때문이다. 그러나 윤씨가 조씨와의 갈등이 완전히 윤씨의 승리도 돌아간 것은 아니다. 윤씨의 승리는 소현의 사랑이라는 불완전한 변수에 기댄, 여전히 불안한 승리일 따름이다. 윤씨의 승리는 친정 가문의 굳건한 확립을 통해

35) <소문록>, 111-112쪽.

36) <소문록>, 113쪽.

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 윤씨가 소부로 돌아오면서 소씨 가문의 완전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친정 부모의 사당과 신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바로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소현이: 필자주) 부모의 고왈 희의 이제 윤시를 마즈 오려 호야 스스로이 헝헝미 슈습순의 미쳐스디 계 구흔을 프지 아냐 구든 마음이 구경을 가비아오니 만일 존명 곳 아니면 동치 못홀지라 이의 업교을 나리오스 브르시물 원흔이이다 승상이 소왈 니 혼 말을 전흔죽 제 엇지 거역호리오 이의 소광 사랑의 당즈 빅흥으로 호여금 안궁의 가 윤시를 마즈오라 혼다 빅흥이 모든 구구을 가초와 이에 치봉누의 니을시 문압히 스후호는 모든 창뒤 촌즈 전호여 왈외니 윤시 반가운 가운데 발서 브르물 지기호엿더니 소싱이 니르려 네필호원 후 승상 명을 전호미 십분 준절호지라 윤시 니려 지비 공경호야 명을 바드미 입의 추스지 못홀 줄 허아리나 두어 도건 언어로뻬 그 뜻을 탐간호시 승상의 말이 엄홈과 상셔의 정의 위곡호야 뉴너을 니치고 스당을 창기호야 이에 치여로 마즈물 명명이 던호며 인호여 니힐를 폐퍼 은근이 도라가물 권호는지라 눈시 생각건드 소싱을 보니여 브르미 구고의 은혜와 위엄이 강행호니 물너 추스호미 네 아니라 부득이 나아가 다시 도라오물 도모호려니와 만일 갖지 못호미 이시면 유아호 처소의 말근 경과 할가호 흥을 더호여 감견과 지초을 맛보며 보스 로하상의 겨비호며 봉누의 안정호만 가지 못홀지라<sup>37)</sup>

인용문을 보면, 윤씨가 안궁에서 소부로 돌아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윤씨는 소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최고 어른인 시아버지 소연의 명을 받아 장손 소백흥이 맞으러 올 때까지 버틴다. 전일 윤씨가 소부에서 사실상 방축(放逐)된 것이 잘못된 행위였고 자신의 귀가를 온 가문에 알리고자 하는 심산이다. 가문의 최고 권위자가 명을 내리고, 그 자리를 이을 장손이 기구를 갖추고 모시러 갔다는 사실은 윤씨의 복권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아버지 소연의 공식적인 귀가요청에도 윤씨는 염두에 두고 있던 것들, 즉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은 모두 챙긴다. “두어 도건 언어로뻬 그 뜻을 탐간”함으로써 진정 자신이 복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백흥이 “승상의 말이 엄홈”과 “상셔의 정의 위곡호야 뉴너을 니치고 스당을 창기”한 후에 “치여로 마즈물 명명”히 전한다. 승상의 전언은 온 소씨 가문의 의사를 대변하며, 소현의

37) <소문록>, 347-349쪽.

곡진한 사랑은 뉴보모를 내쳐버리고 윤씨 친정부모의 사당을 소부에 마련하는 것이다. 윤씨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백홍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서야 소부로 향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인다.

이처럼 윤씨는 모든 요구사항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만약 소현의 약속과 “갓지 못허미 이시”면 다시 “봉누의 안경”하겠노라고<sup>38)</sup>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가모권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소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윤씨로서는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복권, 가모권의 재탈환을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윤씨의 이런 바램은 사실 완전한 것이 못된다. 조씨의 심복인 뉴보모를 내쳤다고 하나 그것은 내친 것이 아니라 고식적(姑息的)인 방책으로 철어사 집안에 시집보낸 데 불과하다. 더욱이 조씨의 친정은 여전히 굳건한 세력을 지니고 있다. 뉴보모가 살아 있고, 조씨 집안이 몰락하지 않는 한 윤씨의 완전한 가권 장악은 요원한 셈이다. 조씨의 집안이 몰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조씨 집안에 맞설 어떤 여건이 마련해되어야 한다. 가권 장악의 다름은 윤씨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승기(勝機)를 잡은 데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윤씨의 완벽한 승리로 보인다.<sup>39)</sup> 뉴보모를 잃은 조씨는 사실상 수족을 잃은 채 대처 방안을 몰라 연속하여 윤씨에게 당하기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뉴보모 귀가를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갈등이 전개되는 서막에 불과하다. 윤씨가 소현의 사랑을 회복하여 가모권을 장악한 이후, 조씨와 뉴보모의 권력 기반과의 새로운 대립이 시작된다. 철어사 부친이 죽자 조씨에게 돌아 온

38) 봉누는 안궁에서 윤씨가 머물던 처소이다.

39) 념견의 궁아는 곡함의 버러 뉴경의 향다을 슬허며 옥호의 미주를 가초아 불시의 춘준물 더후허니 혼 쥬렴을 즈음춘 들빛과 축그림지 셋겨 조요허미 흥군과 침의 나련이 비켜니 다만 보전더 구름겨의 신선이 모닷는 듯허니 그 존귀허며 변화허미 일시의 영요허니 엇지 마음이 요동치 아니리오 인 스는 듯허고 담이 부프니 오직 몸둘 곳지 업서 스스로 보르지져 널오더 하지일 동지아의 저 경식을 더홀진더 초조허리르다 니 엇지 건더여 보리오 급급히 이곳을 떠는 보지 아니디 경희 양칙이라 허야 밤이 맛도록 돌돌 견전허여 즈음 일오지 못허더니 춘효의 ... 윤씨는 식박단장을 파하고 금편을 차며 육난을 울너 몬져 화원의 나아가 사당의 오르디 단경이 휘황허며 성령이 정묘허니 소심의 위곡허를 가허 알너러라 ... 도시 분홍를 인하여 밭서 누상의 버린 바을 움겨 휘황당으로 가니 동뉘 황연이 뷔엇더라 <소문록>, 358-360쪽.)

뉴보모는 요녀 유랑와 짜고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어 묻는다. 그러나 묘원에 의해 인형이 제거되고, 뉴보모의 저주는 무위로 돌아가며, 윤씨는 이를 덮어두려 한다. 이에 유랑과 뉴보모가 다시 저주의 목인을 물으려다가 환홍, 몽홍 등에게 발각되어 유랑이 체포된다. 이에 소현에게 사실을 알리자 소현은 유랑과 목인을 보고 군졸을 모아 심문을 하여 뉴보모가 연판되었음을 알게 된다.

뉴녀 이제 죄를 어드미 실노 동헌치아니나 다만 싱각하니 더 뉴녀로써 혼갓 도부인의 시비라 하여 상공이 스스로이 처치코저하는 이는 본디 궁첩이라 네스냥냥과 갖지 아니코 소헌 심여년을 텨가의 도라가 소실의 위를 가갓다가 이제 풀연이 군위를 베퍼 장후의 마촌죽 반다시 인인의 시비이실지라 임의 왕법이 숨연호고 팔형과 숨천지놀이 잇느니 니 유랑과 뉴녀를 법문의 고호고 정더이 처치호시미 어린 소견의 원호는 비라 모로미 지습 헤아려 후의 누웃부미 잇게 므르소서<sup>40)</sup>

윤씨가 뉴보모를 체포했다는 소식에 소현에게 보낸 한 장의 소의 내용이다. 뉴보모를 사사로이 처치하지 말고 법문에 보내어 법률로서 처치케 하라는 것이 요지이다. 윤씨가 남편이 뉴보모를 처치하는 데 간여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소의 끝에는 더욱 심상치 않은 말이 있다. “왕법이 숨연호고 팔형과 숨천지놀이 있으니 “유랑과 뉴녀를 법문의 고호고 정더이 처치”하기를 굳이 권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습 헤아려 후의 누웃부미 잇게 므르”라고 함으로써 뉴보모를 사사로이 처죄하는 것이 재앙으로 돌아오리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윤씨는 뉴녀를 사사로이 처치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황실이라는 권력의 핵심과 끈이 닿아 있는 뉴보모를 선불리 처죄했다가는 더 큰 화가 되어 되돌아오게 됨을 감지한 윤씨는 법문이라는 객관적 대상을 통해 뉴녀를 처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윤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현은 우선 뉴보모에게 중장을 가하고 법문에 회부코자 한다. 그러나 사사로이 처죄(治罪)를 한 뒤에 법문에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윤씨의 반대로 뉴보모는 풀려난다. 이는 법문에 보내어 뉴보모를 처리하면 깨끗할 것을 선불리 처죄함으로써 이미 사전에 개입한 이상, 법문에 회부했다가는 어떤 도함을 받아 일이 복잡하게 꼬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0) <소문록>, 473-474쪽.

최고 권력층과 연결될 수 있던 뉴보모는 이에 조씨가로 돌아가 복수의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단성공주의 유모 허씨를 통하여 천자에게 모함하도록 한다.<sup>41)</sup> 뉴보모의 이런 모함은 즉시 효과를 발휘하여, 윤씨는 소부에서 쫓겨나고 상원부인의 위는 조씨에게 내려지며, 소현은 천자로부터 견책을 당한다. 이에 소부에서 쫓겨난 윤씨는 시아버지 소연의 배려로 소가의 가신 설홍의 집에 숨어 지내게 된다. 이런 상황은 소현의 무정함과 조씨의 위세로 안궁으로 쫓겨나던 상황과 동일하다. 윤씨의 현실적 처지는 소현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다는 점에서는 전보다 나은 상황이며, 천자와 단성공주라는 권력의 핵심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궁지에 몰린 윤씨의 처지에서 보자면 소현의 사랑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소현의 행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것처럼 비취질 뿐이다. 실제로 승상으로서의 체통은 염두에도 없는 소현은 뉴보모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조씨와 그녀의 소생인 몽룡만을 구박한다.<sup>42)</sup> 이는 윤씨가 상대해야 할 적수가 소현이란 원조자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단성공주와 같은 황실의 지친(至親)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씨가 단성공주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권력자를 자신의 편으로 삼아야만 가모권장악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윤씨는 자식들을 채근한다. 남편이나 시아버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기에 마지막 가능성으로 남아

41) 뉴너 도부의 도라가 창처를 조리홀시 그 원호는 마음이 절되호미 버기를 어르만져 원수 감기를 천만상각더니 단성공취 도시로 연고 서로 갖고 소시의 초방의 깃드러 정의 동포 조미갓고 공주의 보모 허씨 당년의 금등외셔 뉴너는 도시를 맞고 허시는 공쥬를 띄셔 서로 걸위 무양호미 피춘 평의 교련터지라 만일 이 설운 형상을 고히죽 어좌의 드리미 쉬운지라 이의 몸을 실너 단성공쥬공의 이르러 허시를 춘즈 서로 보고 ... 유말을 퍼 널오더 도부인이 처엄의 소군의 이르니 낭낭 위세를 두려 구고와 승상이 십분 중더호더니 낭낭이 승하호시미 첩은 텃가의 곤라너쳐신을 끈고 윤시 서로 득지호야 도부인을 소당의 니쳐 만단고초와 격막호를 었지 이르리오 윤시 임의 아들이 즈랏고 구고의 후더와 낭인이 쯤세를 썬 인심을 취홉호며 가스를 쯤단호야 동셔의 괴탄이 업더니 (<소문록>, 483-484쪽.)

42) 승상이 분노호여 왓 더대뵈 호 츄츄 늘근 년을 니 손의 못지 못호면 니 쯤호 말러니와 다시 풍파을 이르현죽 공쥬와 궁첩은 니 감히 허수치 못호려니와 몽룡은 도시와 날을 함헉호 소인의 동당이라 었지 낭인과 야야라 엄연히 일키라 감히 니 수호의 이서리오 (<소문록>, 72쪽.)

있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기대는 것이다.

윤씨 초흥드려 왈 다만 심각하니 문장은 단정흔 그르시오디 오허려 스마  
천이 산천의 두로 노라 그 흥등을 깨케 하여 천추의 문장이 되니 임의 그이  
홀 몽죄 이셔 인하여 너를 어드미 진실노 천리의 미야지라 네 임의 영웅의  
장괴 이실진더 니 엇지 괴로이 문을 다다 울적흔 병이 되게 허리오 오직 탄  
조를 끼고 물을 돌려 경박흔 더 이르지 말는 넷 스람이 만인적을 과히 녀겼  
느니 더장뵈 세상의 나미 경련위지홀 지조를 괴약하미 이 남으의 큰 쓰지  
라<sup>43)</sup>

여타 일반적인 장편 국문소설에서와 달리 윤씨는 둘째 아들 차흥에게 무예  
를 익히라고 채근한다. 표면적으로는 “문장은 단정흔 그릇”이기 때문에 천리마  
의 기상을 품고 있는 차흥에게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  
흥에게 “경련위지홀 지조”를 익히도록 한 것은 분명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고  
려한 처사이다. 사실 윤씨의 남편 소현은 문사로서 오를 수 있는 정점에 이르  
렀다. 그럼에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씨와 누보모에게 들릴까  
조바심 내며 숨어사는 윤씨가 기대할 것은 오직 자식이 세상을 뒤흔들만한 공  
업을 이루는 것뿐이다. 과연 자식들은 윤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첫째 아  
들 환홍은 부마로 간택되고 차흥은 소현과 함께 남만 정벌에 나서 공훈을 세운  
다. 이에 첫째 부인의 상원위는 윤씨에게 돌아오게 된다.

(윤씨: 뵈자주) 상원위 바드물 스스로 즐겨 아냐 이의 구고고 고히더 소  
첩의 당흔 악명으로써 밍냥흔물 신설흔고 다시 환당의 옥을 줍스오미 인성  
의 죽흔니 엇지 임의 위초조츰 상하하야 등심의 불합흔과 첩의 심스의 불평  
흔물 더으리잇고 ... 승상이 웃고 왈 오늘날 성지는 조강의 네을 불히스 어  
딘 덕을 나타나시며 선취 도축흔는 네를 규정흔시미니 할갓 소가와 현부의  
영광이 아니라 호흔 성명지치오 풍화의 마디라 노뵈 장춧 브슴 말노 현부를  
위하여 스양하미 이시며 그더 엇지 고스하미 이시오 소취 니어 널오더 부  
인이 엇진 연고로 말이 이에 밋는뇨 부인이 다만 정흔 위의 나아갈 분 아니  
라 종통을 전하미 맛당이 상원부인의 장지 니을 거시오 환인 장춧 부마의  
빠쳐시니 공쥬로써 위굴하미 이 신하의 도리 아니라 호흔 환으로써 승격하  
물 이날의 정흔리로소이다<sup>44)</sup>

43) <소문록>, 113-114쪽.

44) <소문록>, 207-209쪽.

황명으로 상원위에 봉해지는 순간까지도 윤씨는 방심하지 않는다. 그녀는 상원위를 짐짓 사양하는 체하며 또 다른 노림수를 드러낸다. 이런 윤씨의 의도를 명확히 간파한 소현은 노골적으로 윤씨의 편을 든다. 즉 윤씨의 상원위 책봉은 “정훈 위”로 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안의 “종통을 전히미 맞당이 상원부인의 장조”로 이를 것이라고 선언한다. 나이순으로 보자면 엄연한 장자인 조씨 소생의 몽흥이 있다. 몽흥은 첩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조씨 집안의 적통을 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현은 환홍이 부마가 되었기 때문에 “공주로써 위굴히미 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억지를 부려 환홍의 승적을 그 자리에서 정해버린다. 첫째 부인의 아들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되지 않자, 공주라는 권력의 핵심을 들이밀며 환홍에게 종통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윤씨의 허식적인 상원위 사양과 소현의 환홍 승적에 분노한 조씨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들이 집안의 종통을 이으면 자신의 위치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소가 사람들의 “의논이 이러듯 구함”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트리는 것이다.<sup>45)</sup> 그러나 윤씨의 아들이 부마로 간택되어 되고 권력에 직접 연결되었고, 남편과 온 집안의 사랑 또한 윤씨에게 돌아간 상황에서 조씨의 분노는 공허한 것일 따름이다. 가모권은 온전하게 윤씨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윤씨는 공주를 맞이 전에 별궁을 새로 크게 짓고 혼인날 사람들 불러모아 화려한 잔치를 벌인다. 윤씨 자신이 가모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승리 선언이자 축하연인 셈이다. 이런 승리 선언에 한 때 적대적 위치에 있던 단성공주 또한 윤씨의 편으로 돌아선다. 이제 윤씨에게 남은 것은 뉴보모의 처리와 완전한 친정 가문의 확립이다.

45) 도시 턴즈의 상원위 밧고물 훔훔다가 승상의 말을 인호여 좌간의 의논이 이러듯 구함호물 보나 민음의 통호호물 출지 못호여 발연이 니르디 첩이 비록 불초호나 엇지 조식의 항닐조조 밧고리오 이 반다시 첩으로써 권디호미 시첩의 분과 가죽게 호미라 호들며 당부의 호 말이 입의 나미 천금으로 밧고지 못호며 사미 밧지 못호다 호거늘 그디의 무신박경이 일도의 언약호 조허로 호여금 현수지 되어 십여년 박명이 오늘날 이의 미츄미 이르니 첩이 불민호나 낭군이 쏠헤 무신호 당위 아니라 (<소문록>, 209-210쪽.)

조씨로서는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뉴보모를 구할 도리조차 없게 된다. 조씨는 뉴보모를 구하기 위해 “일빅번 어러오몰 무릅고”<sup>46)</sup> 윤씨를 찾아 구해줄 것을 부탁한다. 조씨가 윤씨에게 완전히 행복인 형제이다. 이에 윤씨는 너그러운 승자의 여유를 보인다. 윤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정하는 조씨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완전한 패자가 된 것이다.<sup>47)</sup> 또한 윤씨는 친정 가문의 확립을 들켜 아들 차흥에게 말긴다. 이는 윤씨가 차흥에게 윤씨 가문의 향화를 받들게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sup>48)</sup>

윤씨는 가모권 장악이란 소부내의 견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했다. 무정한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고 사실상 몰락한 친정 가문을 일으켜 세우며, 이 과정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장애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이런 투쟁의 과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가문의 역할과 의미를 보여준다. 가문이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당대인의 삶의 양상을 보인다.

부모가 구물하여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윤씨가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벌 열가 내부에서 가모권을 장악하고 친정 가문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영웅적 행위라 할 만하다. 윤씨가 벌인 투쟁의 장은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의 사회적 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소부 내부의 권력 투쟁의 한 양상인 셈이다. 이는 가문이 당대인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좌이자, 이것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사실이라 할 만하다.

---

46) <소문록>, 225쪽.

47) 윤씨 이의 감동하여 위로하여 왓 뉴너 비록 불선한나 부인의 운정이야 엇지 그러치 아니리오 첩이 종녀의 저의 허다한 곤욕을 보드미 비록 수다 피로오미 이 시나 임의 뉴광이 존조 밧고이니 엇지 은원을 그렸야 보구홀 믿음 이시리오 다만 상공의 믿음이야 첩이 엇지 미리 탁양하며 임의 혼호미 이실진더 첩의 일어을 취청하리 업저니와 만일 조각이 이실던더 부인의 지교을 가히 이즈라 도시 인하여 무수한 눈물 흘니다가 도라가니 부인이 쏘한 초창호물 바지 아니 하더라 (<소문록>, 227-228쪽.)

48) 윤부인이 너외손증이 허다한 가운데 십오기 손지 금을 띄며 옥을 브쳐 면면혁 혁하니 당시 성만호미 윤부인그 지는 지 업더라 부인이 윤가 봉제을 서경후(차 흥: 필자주)고 보니여 스시 향화 미진호미 업게 하고 (<소문록>, 324쪽.)

## 5. 소설사적 의의 — 맺는 말을 대신하여

18세기 초반에는 이미 창작되었을 <소문록>은 초기 장편 국문소설의 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가부장적 가문 내부에서 벌어지는 애정 다툼과 가권 쟁취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가권 장악을 위해 윤씨와 조씨가 갈등하고, 음모를 꾸미며 서로 대치하는 방식이 어느 하나 허황되거나 신이하지 않다. 또한 악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폄시되거나 평가 절하되지 않으며, 선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찬양되지 않는다. <소문록>에 등장하는 인물들, 소현이나 윤씨, 조씨 등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인물들이다.

본고에서 주된 고찰의 대상이 된 여주인공 윤씨는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거나 도덕적 이념으로 분식하여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계책을 세우고 주도면밀하게 상대변에 대응한다. 이런 윤씨는 기존의 고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대의 규범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선인형 인물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대의 규범과 윤리에 맞서는 인물은 더욱 아니다. 윤씨는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자신이 처한 환경하에서 살아가야 할 방도를 찾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적 지위와 욕망을 달성하는 현실적 인물이다. 윤씨가 기존의 연구자에 의해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자신의 삶을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sup>49)</sup> 현실적 인물이라고 평가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요컨대 윤씨는 이후 장편 국문소설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이념과 윤리로 분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독특한 성향을 보인다.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철저하게 이념과 윤리로 치장하고 현실적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면 윤씨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현실적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싸운 인물이다. 윤씨의 이런 인물 형상은 이념과 윤리로 분식하지 않은 사씨의 맨 얼굴과<sup>50)</sup> 방불하다. 그렇다고 <소문록>이 <사씨남정기>

49) 이순우, 「소문록에 나타난 인물 연구-여주인공 윤씨를 중심으로」, 『순천향어문논집』 6(순천향어문학회, 2000).

50) 최근에 제출된 두 편의 <사씨남정기> 관련 연구는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소문록>의 윤씨에 당대의 윤리적 가면과 이데올로기적 분식을 가하면 윤씨의 형상과 흡사하다. <소문록>의 윤씨가 비교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사씨는 자

의 모방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sup>51)</sup> 오히려 이념적 분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씨남정기>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주인공이 철저한 유가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는 <소현성록>의 소현성이나 화부인과도 다른 인간형이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주인공이면서도 경박스럽고 호쾌한 소현과 같은 인물 형상이나, 작품 내부에서 가장 부덕 있는 인물로 서술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윤씨 등은 기존의 장편 국문소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이념에 분석되지 않는 생동감 있는 소현이나 윤씨와 같은 인물이 갈등하고 추구하는 바가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의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보이는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갈등 양상도 역시 현실을 반영한 소설적 상황에서의 인물됨에 분명하다. 그러나 철저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념에 분석된 작품의 경우, 연구자들이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의 현실적 맥락과 그들이 진정으로 투쟁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포착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반해 <소문록>은 가모권 장악과 관련한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현실적 여건과 투쟁의 요목을 비교적 쉽게 간취(看取)할 수 있게 한다.

<사씨남정기>의 사정옥이 보이는 무감정의 도덕적 인물 형상이나 <소현성록>의 소현성, 혹은 화부인이 보이는 완벽한 정인군자의 인물 형상에 비하면, 윤씨나 소현은 감정에 충실한 인간이다. 그렇지만 <소문록> 내부의 여타 인물과 윤씨를 비교할 때, 그에게는 내성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면도 다분하다. 이런 점에서 윤씨는 서술자가 도덕적 분석을 위한 노력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사씨나 화부인과 같은 인물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점

---

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은폐한다. 도덕물과 윤리 의식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다. 사씨의 삶과 윤씨의 삶과 방식에는 도덕적 분석 여부만이 다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윤씨와 사씨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고전소설-사씨남정기의 주요 인물에 대한 탐구」, 『문학과 교육』 12(문학과 교육연구회, 2000 여름). /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17(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51) 김기동을 위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소문록>은 <사씨남정기>의 모방작 혹은 그 아류작으로 평가받았다. <소문록>이 가문 내부의 애정 획득과 가모권 장악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는 <사씨남정기>와 흡사한 면모를 지녔으나 인물 형상에 있어서는 판이하다.

이 <소문록>이 아직 본격적인 장편 국문소설의 예비적 단계에 존재한 다양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소문록>의 운씨, 소현처럼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인물과 <소현성록>이나 <사씨남정기>에서의 소현성, 화부인, 사씨처럼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공존한다는 것은 장편 국문소설에 대한 단선적인 예단, 특히 규범적이고 이념적인 인물의 등장을 보이는 단일한 유형의 작품군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피하고, 다양한 유형의 작품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편 국문소설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다채롭고 다양한 유형의 작품이 공존하다가 점차 가부장적 가문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가는 유형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sup>52)</sup> 오컨대 <소문록>은 초기의 장편 국문소설이 보이는 다단한 면모를 짐작하게 하는 한 징표이다. 다단한 소설사적 움직임 속에서 점차 가부장적 가문 이데올로기에 침윤(浸潤)되어 가는 다수의 장편 국문소설이 산생(產生)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소문록>을 비롯한 장편 국문소설의 연구는 아직 초입 단계이다. 그 구체적 존재 양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본다면, <소문록>에 대한 연구 역시 좀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존재 양상을 보이는 초기의 장편 국문소설에 대한 연구도 더욱 열린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전성운, 「장편 국문소설의 변모와 영웅소설의 형성」(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참조.

Abstract

## The Love Complication and the Dispute about the Right of Big Mother in <Soomoonrok>

Chun Sung-woon

<Soomoonrok> is one of the works which exist in the first stage of long Korean novels.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it was written at early 18th century. For this fact, it is surely necessary that the researcher should study for the <Soomoonrok> in details.

<Soomoonrok> realistically described a love complication and a dispute on the right of big mother in the So family. Not only the phase of dispute between Ms. Yoon and Ms. Cho is very realistic but the methods of conspiracies against the opponent are really tactful. These facts mean that good persons are not apparently distinguished from bad persons among the characters of <Soomoonrok>. Generally, the hero or heroin in long Korean old novels are make themselves up with the moral codes and ruling ideology. On the contrary, the heroin, Ms. Yoon, the So's first wife is a very aggressive and active woman, and also she directly expresses her emotional conditions towards her opponents. She carried out the every kinds of ways to obtain the love of her husband and the right of big mother in So family.

As considering the love complication and the dispute on the right, we can find out the principal items for accomplishing the right of big mother under the fatherhood family system. And also, we can understand that various types of works existed at the first stage of long Korean novels. But the posterior to the first stage, the moral and ideological type of works were to dominate over the every types of long Korean novels. As this researching

make the fact clear that Ms. Yoon is an unique heroin in long Korean old novels because of her character, and this kind of heroin shows the phase of the first stage of long Korean novels which various types of works exist.